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2.20원 상승한 1,325.30원에 마감

7일 환율은 전일대비 12.20원 상승한 1,325.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90원 상승한 1,316.00원에 개장했다. 달러 강세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로 아시아장에서 달러 매수세가 확대되며 레벨을 높였다. 환율은 장중 1,327원대까지 급등세를 보였고 1,325.3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11.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6.93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16.00	1327.20	1315.90	1325.30	1322.7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890.98	926.60	890.90	922.11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13.10	1433.64	1412.89	1430.71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77	-6.55	-13.67	-26.23
결제환율(수입)	-1	-5.5	-11.98	-23.49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엔화 초강세 여파에...1,310원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1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25.30) 대비 11.20원 하락한 1,312.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엔화 초강세가 촉발한 달러 약세에 하락이 예상된다. 간밤 엔화는 BOJ 정책 전환 가능성 시사 발언에 달러대비 약 3.8% 급등했다. 히미노 로조 부총재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 정책을 정상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언급했다. 또한, 우에다 총재는 의회에 출석해 연말부터 자신의 임무가 더 도전적으로 될 것이라 언급하며 통화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일본 중앙은행의 예상보다 이른 마이너스 금리정책 종료에 대한 기대는 엔화 초강세로 이어지며 달러 약세를 야기했다. 달러인덱스는 전일대비 0.58% 하락한 103.593을 기록함에 따라 금일 환율

은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율 상승을 관망 중이던 수출업체 추격매도도 금일 환율 하락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07.50 ~ 1318.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98.7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1.20원 ↓
	■ 美 다우지수 : 36117.38, +62.95p(+0.1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0.2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99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